

# ‘든든한 복지 · 성평등 실현’ 박차

### 김관영 도지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방문... 여성교류활성화 사업 등 센터 역점사업 · 기관 혁신 방안 공유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2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방문에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전정희 센터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 20대 핵심전략인 든든한 복지 · 성평등 실현에 따른 주요 사업과 기관 혁신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센터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교류활성화 사업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가족복지 지원 사업 △양성평등 인식 조성 사업 △구인 구직자 발굴 및 취업지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재직자 채용기 업 사후관리 △일 · 생활균형문화 확산 사업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김 지사는 연 5,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일반교육 강의실 지역 작가

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 문화공간 소소담(談) 전시실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영상스튜디오 및 대강당 등을 둘러봤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도내 여성의 잠재력을 키우는 중심에 있다”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시스템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및 전북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2022년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최우수)을 획득, 도내 유일 여성기관으로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할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2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해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전북여성일자리센터 전경.

## 대학과 함께 크는 기술창업기업

### 창업중심대학교 사업화 지원사업...2026년까지 국비 400억 투입 예비 · 초기 · 도약기업 80개사에 32개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창업중심대학교 사업화 지원사업’이 전라북도를 기술창업의 산실로 성장시키고 있다. ‘창업중심대학교 사업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모사업으로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활용해 지역 청년 창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전국 6개 권역에 각 1개 대학을 공모 선정했으며, 호남권에는 전북대학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해 창업 성장단계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400억원을 지원

받아 창업 성공률 제고와 유니콘 기업 배출을 목표로 예비창업자부터 초기 · 도약 기업까지 전주기 단계별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첫해인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국비 78억원을 포함 총 81원을 투입해 예비 · 초기 · 도약 단계별 창업자를 총 85명을 대상으로 32개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윤세영 전라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생존율을 높이고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전주기 지원으로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장수 · 진안 경계 지역에서 산림사업 현장 간담회 실시

### 산림청 · 정칙권 등 참석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관련 신광재 점검 · 현장토론 진행

지난 2일 장수군과 진안군 경계 지역인 금남호남정맥 신광재에서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건의 대상지인 신광재를 점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신광재는 해발 740~800m 분지형 고랭지로써 전라북도에서 국내 · 외 약용식물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산림(약용)식물 융복합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

최훈식 장수군수와 전춘성 진안군수, 전라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이 주관부처인 산림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현장간담회에 함께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



지난 2일 장수군과 진안군 경계 지역인 금남호남정맥 신광재에서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업이 국가사업으로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원 조

성사업과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청과 진안군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며 “산림청도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사업을 원활

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현재 산림치유원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산림청에서도 지역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 안전을 위해 공사와 관련된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본 사업예정부지에 포함된 장수군 토지가 빼어난 경관을 갖춰 관광객 유치에 큰 잠재력이 있고, ‘산림(약용)식물 융복합 단지’가 조성되면 인접한 와룡자연휴양림과 장수 치유의 숲과 연계한 전국 명소의 체류형 산림치유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라북도 및 진안군과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주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기자 · 장수=고관호기자



## 전북도, 균형인사부문 정부 우수기관 선정

### 17개 광역자치단체 대표해 우수사례 발표

전라북도가 3년 연속 균형인사부문 정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전북도 등 우수한 성적을 받은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9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균형인사’란 여성 · 장애인 등 그간 공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였거나 소외되어왔던 집단의 공직임용을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 · 승진 등 인사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포용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의미한다.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는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우

수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적 균형인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북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인사’를 주제로 균형인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전북도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장애인공무원 채용 노력’, ‘남성공무원 육아 참여 확대’ 등에 있어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균형인사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해 균형인사,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인사를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도, 관광숙박업소 · 야영장 안전점검

### 시 · 군 · 소방 전문가 등 합동 추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전북도는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관광숙박업소 안전점검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후시설, 대규모 시설, 지난 안전 점검 시 지적된 시설 위주로 39개소를 선별해 표본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신축 여부 △전기 · 가스시설 안전성 확

보 여부 △지적사항 이행실태 여부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용품 비치 여부 등이다.

야영장 안전점검은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도내에 등록된 야영장 135개소 중 시군별, 형태별(일반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글램핑장, 캐라반 등)로 40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시설 노후도, 안전사고 발생 이력, 규모를 감안해 선정한다. 점검사항은 △난방시설 사용에 따

른 단풍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야영용 시설의 적정거리 이격 여부 △사업자 및 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점검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응급조치 후 신속히 사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행위 또는 업무 소홀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